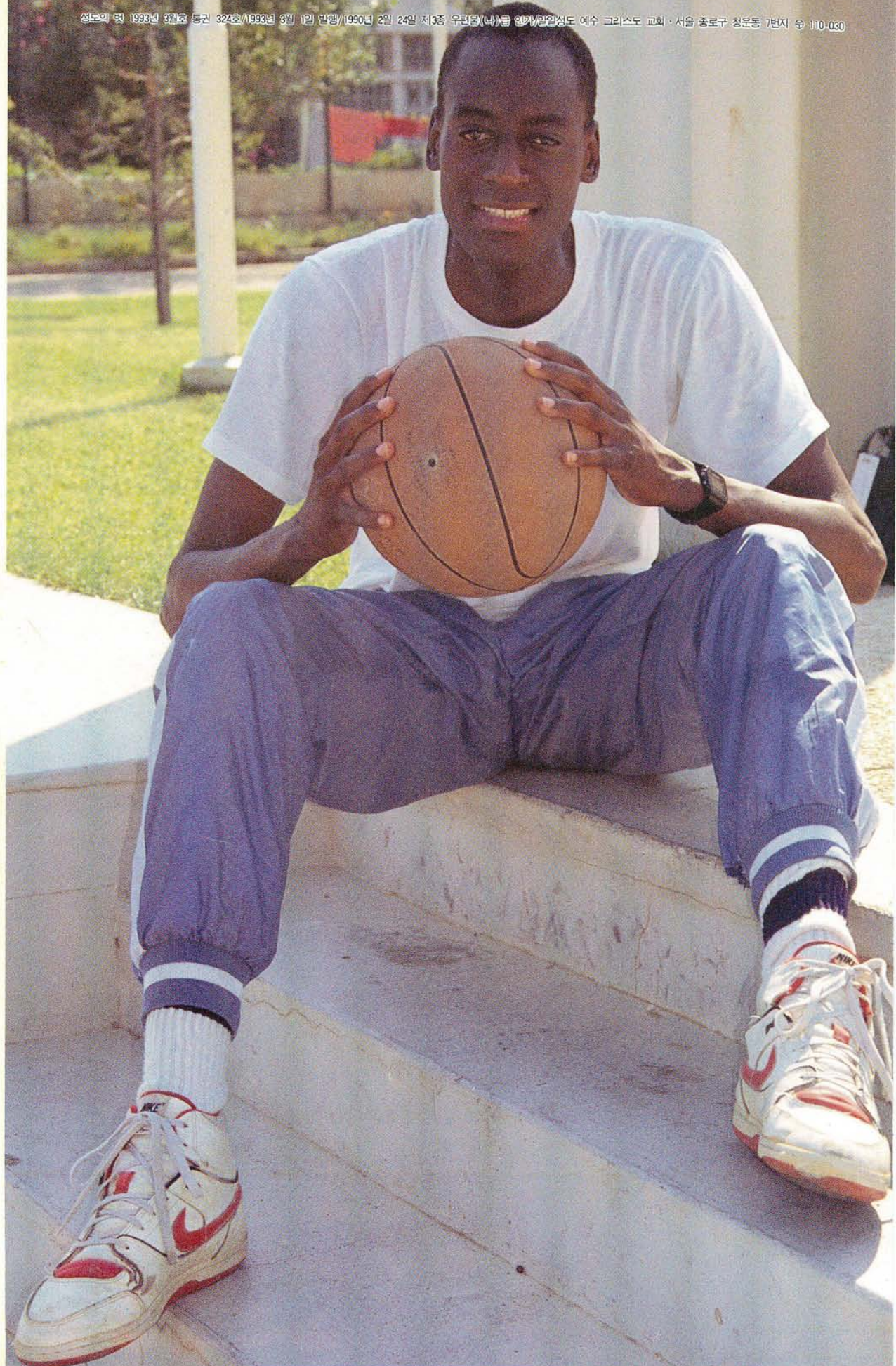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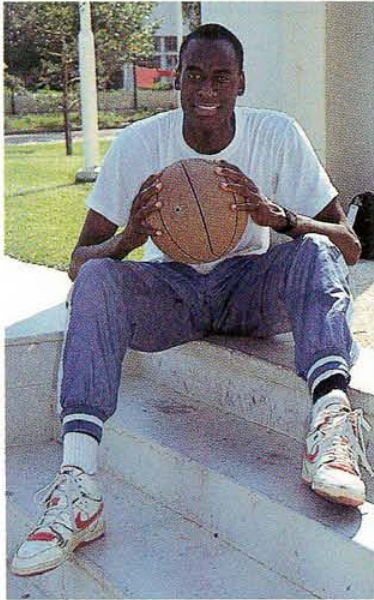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벗 3



# 성도의벗 3<sup>1993</sup>



**표지 설명:**

아프리카의 진흙 오두막을 떠나 포르투갈에서 직업 농구 선수로 활동하던 올리비오 고미즈 만월은 늘 자신이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는 선교사 두 명을 만남으로써 그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34쪽, "올리비오 고미즈 만월: 성공의 비결" 참조.  
리사 에이 존슨 촬영.

**어린이란 표지 설명:**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지미가 있는 가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어린이란 56쪽, "가족은 영원해" 참조.  
스티브 번더스 촬영.

##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나는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2  
 명예로운 개척자들이여 축복받을지어다 매리 엘렌 에드먼즈 .....12  
 마늘리의 첫 금식 캐롤 앤 보우먼 리베로 .....24  
 용기있는 사람, 존 테일러 리안 알 하츠혼 .....26  
 카를로스과 마리아 로이그 : 마음의 변화 마빈 케이 가드너 .....40  
 나는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입니까? 페트리아 켈리 .....46

## 청소년란

나쁘지 않아요 줄리 엠 줄리 .....10  
 물론 메시지 .....19  
 올리비오 고미즈 만월 : 성공의 비결 리사 에이 존슨 .....34

##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질의 응답 :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  
 방문 교육 메시지:  
 염려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함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 어린이란

쓰레기 통을 뒤지는 노인 폴 와이스 .....50  
 함께 나누는 시간 : 성전과 의식 주디 에드워즈 .....54  
 노래 : 가족은 영원해 루스 엠 가드너/벤자 와이 윌킨즈 .....56  
 뉴스 속의 친구들 : 스페인과 포르투갈 .....58  
 친구가 친구에게 :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60  
 조지 앨버트 스미스 켈리 리스 .....62  
 타임 캡슐 루드 아이먼 .....6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칭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렉스 다 파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24호, 제30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3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상 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3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3983 320  
Printed in Korea 3/93

주님은 제 곁에 계십니다.

1992년도 노르드스차르난(스웨덴어) 4월호 가운데서 스티븐 이 로빈슨 형제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글을 읽고 혼자서 무슨 일יד든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능력 이상으로 빨리 뛰라는 강요를 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십니다.

기슬러 야코비  
스웨덴 스발로브  
말모 지방부, 헬싱보르그 지부

보혜사와 힘

교회가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혼자 교회에 참석하는 독신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이또 노 미찌(일본어)에 독신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충실하게 생활하면 이 생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귀환 선교사이며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세이또 노 미찌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 제게 위안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요청에 따라 이름은 신지 않음.  
일본

영감에 찬 이야기

저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탐볼리(영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탐볼리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1992년 4월호에 실린 제니 아일랜드와 그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인 "전과를 정복함"이란 기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에게 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청소년 회원들에 관한 기사를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복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집니다.

앨러리 에스 오리애스  
필리핀, 케존, 타야바스

편집자 노트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종, 봉사, 기도, 십일조, 성전, 선교 사업, 금식 등 독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적용했던 복음 원리에 관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복음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경전을 공부하면서 얻은 통찰력, 성신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축복받았던 이야기 또는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하거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경험한 이야기 등 복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도 환영합니다.

다른 독자들과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소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보내실 때 여러분의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스테이크/지방부, 시, 나라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자필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출간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 나는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 리들은 모두 자신의 신님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러한 신님께 의해 좌우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님이 우리가 행동하는 데 표준이 됩니다.

신앙개조는 1842년에 우리 교회의 교리를 요셉 스미스가 간략하게 성문화하여 공표한 이래로 교리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개조는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 요약된 우리의 신조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해 기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열 가지로 된 제2의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로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격려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음의 10가지는 반드시 중요한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소로 지으셨습니다.

하나 : 나는 인간의 신체의 위대함과 인간 정신의 기적을 믿는다

저희 집에는 꽤 좋은 음향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방안을 어둡게 하고 조용히 앉아, 뛰어난 작품성으로 인해

수세기를 걸쳐 애청되어 온 명곡들을 한 시간 여 동안 들곤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는 베에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다가 것처럼 훌륭한 곡이 한 인간의 정신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 작곡가도 여느 인간과 다름없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몸집은 얼마나 큰지, 또 몸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도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며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갖지 않은 문제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람의 천재성에서 몇 안되는 격조 높은 음악의 걸작품을 만드는 엄청난 능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눈, 듣는 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음성과 같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사진기도 사람의 눈에는 비교가 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고안된 어떤 대화의 방법도 음성과 귀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펌프도 인간의 심장만큼 오래 혹은 능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체의 구성 요소는 제각기 참으로 놀랄 만큼 뛰어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보십시오. 뛰어난 기술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재생해 보고자 아무리 시도해 봐도 만들어지는 것은 고작 조잡한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에는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교향곡 연주홀에 앉아 연주를 듣다가 위치가 좋아서 교향악단 연주자들의 손가락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악기 연주자이건, 타악기 연주자이건, 또 금관 악기 연주자이건, 목관 악기 연주자이건, 모두가 자신의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부는 데는 손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밖에는 훈련된 손가락의 민활한 움직임이 없이는 음악적인 조화를 거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통계학자인 조지 갤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인간의

육신 하나만을 두고 보더라도, 인간의 모든 신체 기능이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기에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원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성소로 지으신 것입니다.

저는 육신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혀갈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통계 조사에 따르면 담배 한 개피의 흡연이 7분간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육신을 파멸로 이끄는 마약을 흡취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해서 청천 벽력같은 죽음의 병인 에이즈나 기타 질병에 걸리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절정기입니다. 저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발명이나 과학적인 발견의 업적이 그 이전의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큰 기적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분석하며 종합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오랜 탐구와 시행 착오를 거쳐서만 배웠던 것을 짧은 기간에 배울 수 있도록 수세기 동안에 걸쳐 축적되어 온 지식을 요약하고 여과시켜온 학문이라는 과정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은 추상적인 지식을 유용하게 해주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게 해주는 위대한 변환 작용입니다. 교육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그로부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적을 통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며 삶의 축복과 충족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금을 통틀어 사고력 깊은 작가들의 글과 그들이 쓴 작품의 맛을 더욱 음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우리는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교리와 성약 88:118)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교리와 성약 130:18)할 것입니다.



둘 : 나는 아름다움을 믿는다

태초의 아름다움을 지닌 땅은 창조주의 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참으로 흥미있습니다. 여기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창세기 1:2)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름다움이 결여된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3절)습니다. 그 창조의 작업은 계속되었으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31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지으신 것이 아름다웠다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다운] 나무가 나게 하”(창세기 2:9)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꽃, 과일, 하늘, 산, 또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평원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또한

동물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며 또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로션이나 크림 또는 맛사지용 화장품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흰가 검은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는 아름답습니다. 주름이 깊이 패인 손과 얼굴에서 고뇌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모습이 배어 나오는 노인 또한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람의 미덕이 갖는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추한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스러운 언어나 단정치 못한 의복과 태도, 악덕이 아름다움을 조롱하고 언제나 흠집을 남겨놓는 부도덕한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각자 이 불결하고 파괴적인 악, 곧 이 추악한 부도덕이라는 얼룩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또한 떨쳐버려야 합니다.

셋 : 나는 일의 진리를 믿는다

이 세상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화시키고 불투명한 꿈을 역동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하기보다는 앉아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놀고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손의 능력을 활용하여 평범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높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음식과 의복과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개인적으로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의 조국이 세계 앞에 우뚝 서기를 바라다면 능숙한 손과, 지식과 경험 등을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세기 3:19)

## 넷 : 나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임을 믿는다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무섭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부정직은 사회에 병폐가 되어 왔습니다. 보험 당국은 부정직한 청구로 지급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로 인해 수십 억원의 국고가 강탈당하는 꼴이 되어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만 부당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정 직원의 횡령이나 지출 장부 조작에 따른 돈의 착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들로 인해 사업 단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그러한 손실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도저히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관리 감독단 사무실로 편지 한통과 오래된 재떨이 한개가 배달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5년에 선생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던 호텔에서 동봉해드린 재떨이를 훔쳤습니다.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귀 교회에 사죄드리고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서명)

“추신:재떨이 값으로 수표 한장을 동봉해드립니다.”

그 수표의 액수는 26달러로서, 재떨이 값으로 매년 1달러씩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6년 동안 그 재떨이에 담배를 부벼 끌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재떨이가 분실되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한 세기의 4분의 1 이상의 세월 동안 마음의 평정을 잃고 결국은 그 재떨이 가격 이상의 돈을 지불한 뒤에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 다섯 : 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봉사함으로써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

저는 금전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어난 혼란의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목적 의식을 갖고 힘과 정력을 기울여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를 발전시키고 환경을 정화하고 주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어떤 혼란이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는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노고가 없다면 우리 사회의 집 없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성공한 유명한 변호사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 그의 아내는 그에게 “우리의 여가의 4분의 1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쓰기로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그 결심 또한 지켜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된 그 친구는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대단한 혜안을 가지고 공공 건물을 축조하는 등 그가 하는 사업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활기있고 비이기적인 지도자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해 본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얻는 엄청난 행복감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한 수많은 세미나리 및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 가운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세미나리를 가르치기 위해 일주일 가운데 다섯을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이 일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베나민 왕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모사이아서 2:17)

## 여섯 : 나는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위임을 믿는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행복한 가족 관계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통이나 가장 암울하고 비참한 느낌은 불행한 가정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지만, 제 견해로 볼 때 이러한 실패는 바로 이혼 등으로 파괴된 가정에서 나타나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 비통함이란 측량할 수 없으리만큼 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대부분이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힌 쪽에서 회개를 하고 상처를 입은 쪽에서 용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문젯거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며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내를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대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 자신의 남편을 닮았어요 힘이며 위안이에요 보호자로 존경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또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크고 중요하며 훌륭한 임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과 관용과 희생을 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이상을 다 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질은 정열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평안과 복리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방법만 생각한다면 신뢰나 사랑 뿐만 아니라 행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에만 사랑이 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번영과 발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상대방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 주고 배우자가 어떤 책임이나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그를 도와주는 평등한 동반자 관계인 것입니다.

### 일곱 : 나는 근검 절약의 원리를 믿는다 . . .

우리는 사회에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도산하는 기업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도산의 원인은 상당 부분이 무분별하게 지불 범위를 벗어날 만큼 많은 부채를 지는 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채무자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는 금융 기관들의 도산으로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대출받아 간 사람들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튼튼했던 은행이 휘청거리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마는 사태를 보아 왔습니다. 최근에 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한 큰 국제 항공사가 생각납니다. 그 항공사는 어음을 결제하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 항공사는 세계에서도 선도적인 민간 항공사였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한때는 항공사들의 군왕이었던 이 항공사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상은 간 곳 없고, 지불 능력 이상으로 부채를 진 결과 곳곳에 항로를 매각하고 급기야는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수입의 50퍼센트를 채무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15년전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90년 10월 15일자, 136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기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1년 내에 미국의 비담보부 채권액만 27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1가구당 평균적으로 수입의 30퍼센트를 채무 변제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1년전의 20퍼센트에 비견되는

수준입니다.(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같은 쪽 참조)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은 “고쳐 쓰라,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사용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여력이 없으면 쓰지 말라.”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능력이 되는 가정에서 구매를 위해 합당한 선에서 부채를 지거나 꼭 필요한 몇 가지 물품 구입을 위해 부채를 지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 볼 때, 정말로 절실하지도 않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부채를 진 사람들이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가족에게 평안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실망과 낙담을 안겨 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복음의 표준, 솔트레이크시티: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111쪽)

### 여덟 : 나는 자신을 믿는다

저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며 성장 발전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의 내부에 거룩한 그 무엇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성한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부에 그러한 유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의무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믿습니다.

저의 봉사가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또 저의 공헌이 아주 적을지라도, 저는 위엄을 갖고 행할 수 있으며 이기심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비록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주는 데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육신과 제 마음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들의 의견과 신념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돕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통해 더욱 큰 선이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선은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선한 행위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아홉 :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구속주인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신 다음과 같은 황금율의 원리를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

저는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원리를 믿습니다. 비록 행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랴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믿습니다.(신앙개조 11조 참조)

저는 과거에 쓰여진 거룩한 기록들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책, 즉 경전은 우리의 법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 및 가족의 책임에 관한 기본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과 원리와 계명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는 흔들림 없는 추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갈라디아서 6:7 및 교리와 성약 6:33 참조) 또한 경전에는 청지기의 업무 보고에 관한 율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따라, 우리에게 그 모든 기쁨과 모든 기회와 극복해 낼 수 있는 모든 문제들과 함께 삶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와 활동에 대해 언젠가는 보고를 드려야만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7:3 참조)

완전히는 아니지만 최소한 조금이나마 저는 아버지와 구속주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 열 : 나는 기도를 믿는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나아오라는 권유를 믿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는 약속이 참됨을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소년 요셉 스미스는 숲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무릎 꿇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문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묘사한 그 시현이 참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세상의 부활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청결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한 소년과의 대화를 기초로 하여 바로 이 위대하고 훌륭하며 참된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제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늘 드리며, 교회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불러 오는 그 기도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도와 위안과 평안을 위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아름다운 특권인 기도를 믿습니다.

이상은 저의 열가지 신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1인칭 단수를 사용했지만, 별로 잘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저는 제가 바랄 수 있는 정도까지 성공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위의 신조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신조들을 바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대개가 신념의 산물이다. 이 신념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2. 헝클러 부대관장은 개인적인 지표로 삼고 있는 열 가지 신조를 열거하고 있다. 그는 다음을 믿는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위대함

-아름다움

-일의 진리

-정직이 최선의 방책

-봉사의 의무와 그에 따르는 축복

-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임

-근검 절약의 원리

-자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

# 나쁘지 않아요

줄리 엠 줄리

“오늘은 성전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겠어요.”라고 밝게 웃으며 피꼬리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성전 결혼이나 지혜의 말씀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벌일 때마다 꼭 누군가가 비회원이며 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차례 아빠가 화제에 올랐었습니다.

두 시간 후, 저는 반원들의 이야기에 여전히 당황하여 낮을 붉힌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나쁜 분이 아닌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아빠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은 왜 저렇게 아빠를 비판하는거야?

교회에 다녀온 그날 밤, 저는 비판하는 것에 관한 성구를 찾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언제나 의인과 악인을 가려낼 수도 없으리라. ...이 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에 알맞은 시기라 여겨질 그때까지는 네 화평을 견지하라.”(교리와 성약 10:37)

저는 그 말씀을 몇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와드 회원들에 대한 저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성구는 내가 옳고 그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이 성구를 인용하여 회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간증 모임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저의 분노가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와드 전체를 상대로 싸우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요일까지 저는 더 좋은 계획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보여주는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일요일에 아빠와 함께 집에 있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와 누나들이 교회갈 준비를



# 이웃을 사랑하라

##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있을 때에도 저는 험령한 웃을 입고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지척거렸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셨지만 저는 아빠가 제편이 돼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두들 나가고 난 뒤에 아빠는 왜 집에 남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와드에 몇몇 회원들이 아빠를 심하게 비판한다는 얘기까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 교회가 중요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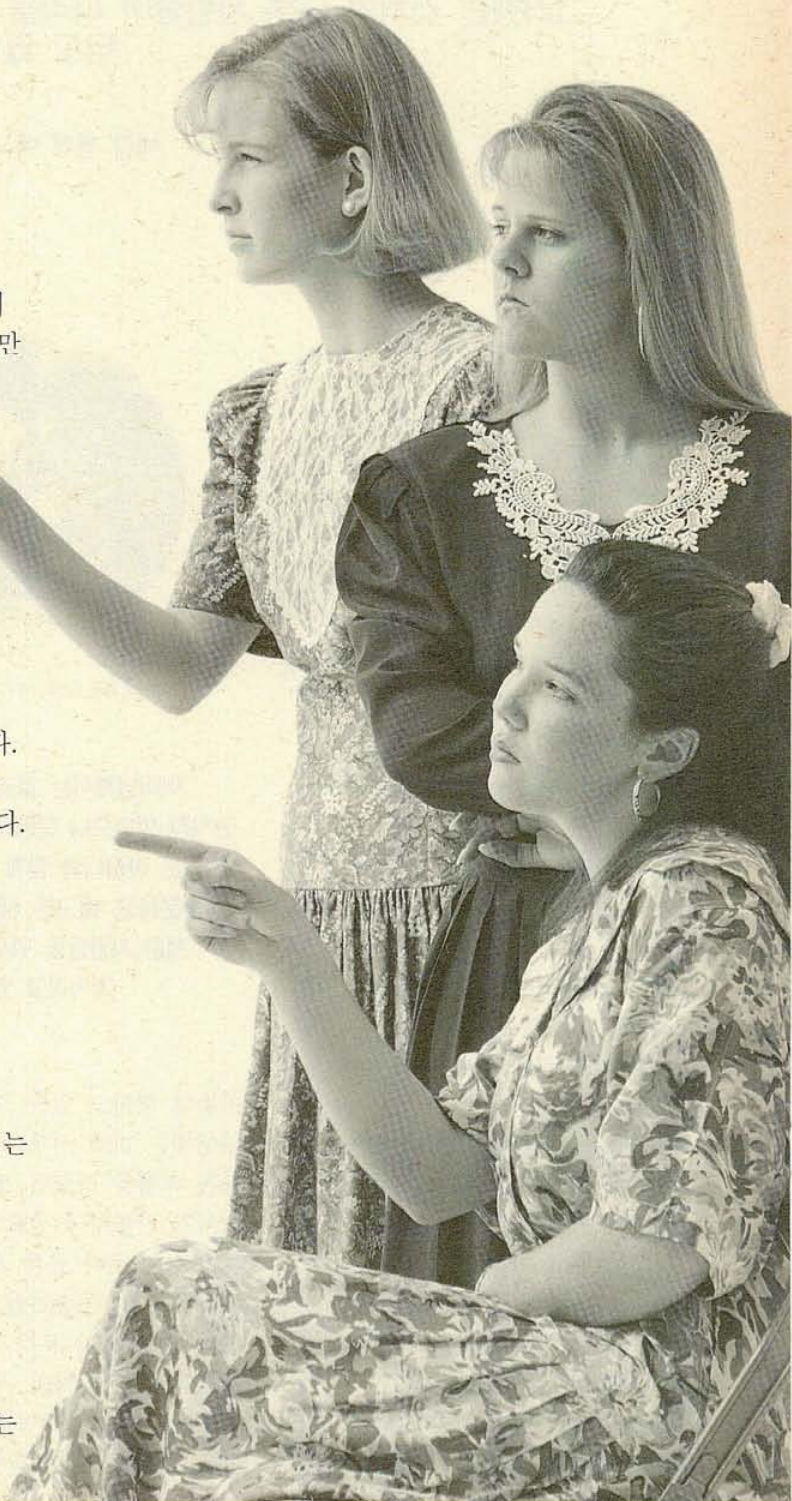
“교회가 참되다고 믿니?” 하고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참되고 말고요.” 저는 도대체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궁금해 하며 대답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참되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물몬들은 비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씀하시며 아빠는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나를 슬쩍 미셨습니다.

“네 화평을 견지하라.”는 경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말은 와드 회원들보다는 저에게 더 적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사람들이 고의가 아닌데도 때때로 실수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어쨌면 제가 와드 회원들을 부당하게 비판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 갈 것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에게 정직과 존중심과 근면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아빠는 저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 명예로운 개척자들이여 축복받을지어다

전세계의 말일성도 여성들은 개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고 또 길을  
닦고 있다.

매리 엘렌 에드먼즈

**최** 초의 물론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온 지 130주년이  
되는 1977년 7월 24일 일요일  
성찬식에서 나는 개척자에 관한  
말씀을 하였다. 그 당시 배운 지  
얼마 안되는 인도네시아어로 말씀을  
했던 까닭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당시 중부 자바의  
솔로 지부 회원이었다.

개척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나는 푸르름이 가득한 유서 깊은  
땅에서 몇 안되는 최초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인 이  
조그만 지부의 회원들이 바로  
개척자들이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말씀을 끝내자 몇몇 자매님이  
다가와 유타 개척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이 지냈던 커다란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며 나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나는 신앙과  
고난에 관하여 이 위대한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개척자로서



덴버 공공 도서관, 서부 역사과 제공

어머님께서는 결코 손수레를  
고시진 않았으나 분명히 개척자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노력들이  
나에게는 미국 서부를 향하여 그  
힘든 여행을 하였던 개척자들의  
이야기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다. 초기 물론 개척자들을  
찬미하는 한 찬송가인 “나라를 세운  
이들”의 가사가 문득 떠올랐다.  
참으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  
자바의 자매들에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나는 점차 주위에도  
개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개척  
시대가 1800년대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마차 행렬과 손수레 부대가  
이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여  
끝이 났던 것도 아니다. 처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척은 비단 1770년대나 1880년대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 한복판, 그리고 외곽 지역 등  
의로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앞서 갈만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다. 이러한  
개척자들을 많이 만났으며, 이들로  
인해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신앙의 얼굴들

축복받은 명예로운 개척자들을



이 볼리비아인 개척자들은 이들의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 침대에서 가정의 밤을 가졌다. 비와 진흙탕을 무릅쓰고 걸어서 이들을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러버 영상 재공

생각할 때면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특별히 내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상호부조회의 표어로서 선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성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 자매님들은 참으로 봉사를 자신들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랑을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매일 이 자매님들은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으며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나의 어머니이다. 어머니와 함께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던 일이 기억난다. 나의 어머니는 결코 손수레를 끌지도 않았으며, 솔트레이크 계곡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으나, 분명히 개척자이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가정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 사람을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여주시곤 하셨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의 인디안 마을로 가서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가정 의료 기술을 가르쳐 준 적도 있었다.

나는 또 바바라 테일러 자매를 기억하고 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962년 내가 신임 선교사로 홍콩에 입국했던 날이었다. 테일러 자매는 남극동 선교부의 로버트 셔먼 테일러 선교부장의 아내였다. 도착한 다음 날, 자매님은 나를 데리고 방문 교육을 갔었다.

광동어를 할 수 있는 몇몇 자매 선교사와 함께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항구로 가서 나룻배를 타고 애버딘이라는 곳으로 갔다.

우리가 방문한 집들 중에는 언덕

위에 땅을 파서 만든 움집도 있었다. 우리는 병아리와 어린이들 사이를 헤치고 손으로 만든 흙 계단을 올라가야만 이러한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아름다운 중국인 자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자매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느꼈다. 나는 언덕의 다른 편에서 피난민 가족을 보았는데 이들도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와중에서도 지상 생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주위에는 나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배우고 성장하며 돕고자 하는 열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였으나 우리는 미소와 느낌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 시련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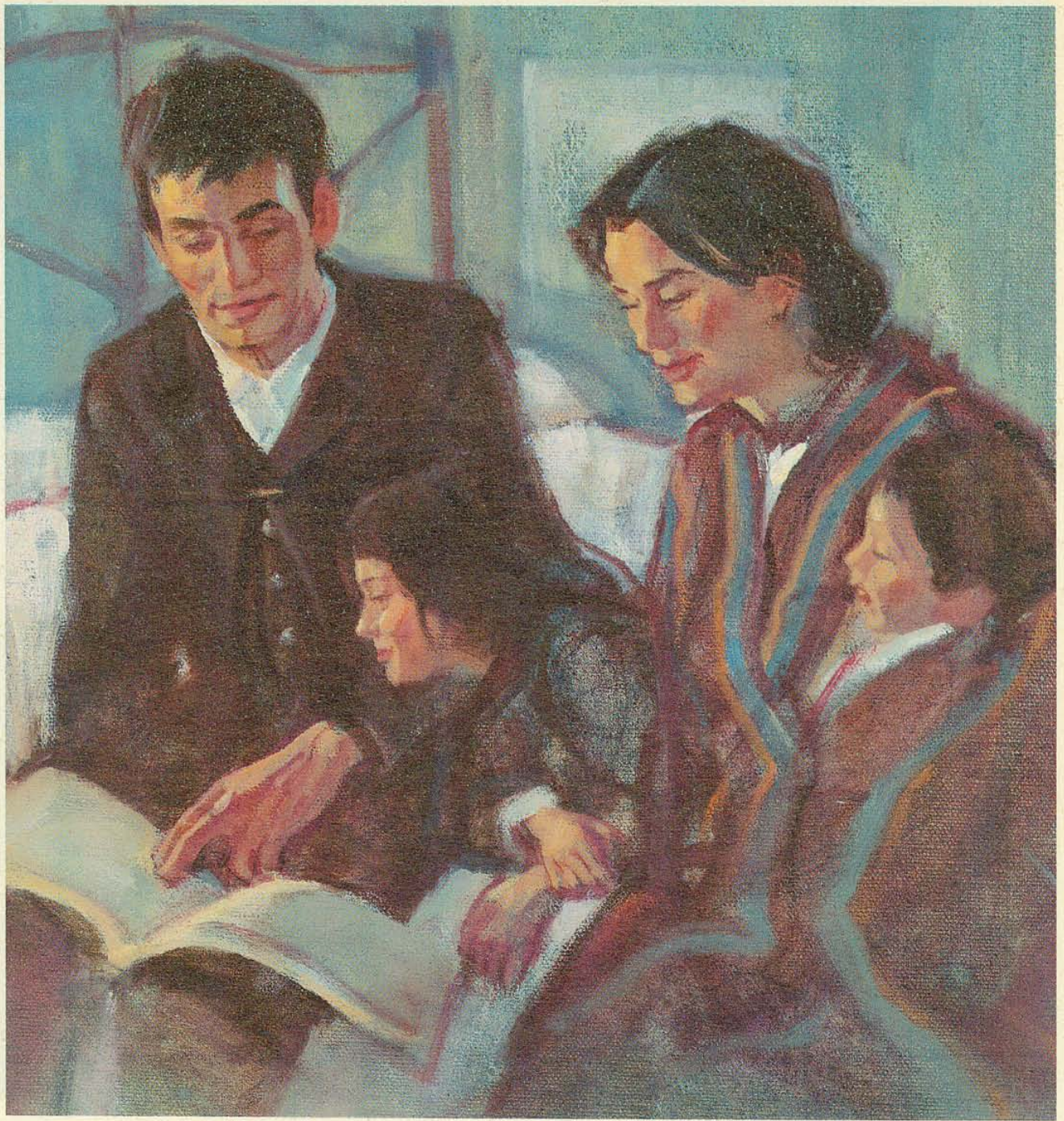
맥신 그림 자매는 내 마음속에 명예로운 개척자의 위대한 모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내가 그 자매님을

만난 것은 1964년으로 필리핀 전체에서 한 개의 지부와 전체 회원이 백 명도 채 안될 때였다. 남편인 피터 그림 형제와 함께(우리는 그 형제님을 “그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자매님은 이 아름다운 섬나라에 진리의 깃발을 펼쳤다.

그림 자매님은 2차 대전 동안 적십자에서 자원 봉사자로서 일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필리핀에서 새로운 교회 회원을 돕기 위해 이곳에 남았다. 나는 자매님이 카미아스 7-D 거리에 있는 우리의 조그만 거처에 도착하여 우리를 도와 쿠에손시 최초의 상호부조회를 조직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자매님은 상호부조회 잡지를 가져와 다른 자매님들에게 빌려주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용 오르간을 가지고 와 비록 여섯 명 뿐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몇명 안되던 초기 필리핀 말일성도들 중에 많은 아름다운 얼굴들이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분이 쿠에손시에서 침례받은 최초의 개종자인 살루드 디손 지메네스 자매이다. 이 자매님은 수도인 마닐라 근처에 있는 대도시 쿠에손시에 훗날 지부가 조직되었을 때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다. 지메네스 자매와 이밖의 많은 사람들은 종종 버스를 타고 파세이에 있는 테프트가까지 여러 시간을 여행하여, 거기서 우리와 함께 교회 모임을 갖곤 하였다. 이후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들 위대한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온 결과 오늘날 필리핀에는 47개의





스테이크에 삼십만의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여 회원이 되었으며, 또한 마닐라시에 자리잡고 있는 성전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다.

#### 새로운 기초를 닦음

나는 멕시코 몬클로바에서 여러

가족을 도와준 또 다른 한 여성 개척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부가 이들의 가정을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1975년 9월의 어느 일요일에 그 자매님을 만났다. 아델리타 자매님은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내게 보여 주고는 지부의 다른 자매들이

이들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공부 습관을 가르치는 일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 말해 주었다. 비록 아델리타 자매 자신은 읽고 쓰는 법도 모르는 문맹자였지만, 교육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 자매님은 겸손하고, 상냥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닌 분이였다.



나는 멕시코의 베르메지로라는 마을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1975년에 나는 그곳에서 몇몇 보건 선교사들을 만났다. 우리가 지부장님과 그분의 아내와 함께 흙먼지 나는 길을 걸어 가고 있을 때, 야채와 꽃이 심어진 정원이 이들의 작고 단정한 마당을 빛내고 있었다. 우리가 몇 집을

지나가자, 지부장의 자매님이 우리에게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말일성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문할 때에는 다른 말일성도의 가정처럼 걸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지부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나는 또한 볼리비아의 알티플라노에 사는 아름다운 파이 자매님과 함께 지냈던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1975년에 자매님과 그분의 가족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겨우 세달 전에

매주 모임 후에  
인도네시아 자매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고는  
그 주에 모은 쌀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 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클라버 영신 제공

교회 회원이 되었으나, 김볼 대관장님께서 정원을 갖도록 교회 회원들을 격려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만든 작은 야채 정원 두개와 화원 하나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매일 밤 그들은 소중한 꽃과 야채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들을 비닐로 덮곤 하였다. 나는 이들의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 침대 위에서 가졌던 가정의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었다. “비와 추위, 진흙탕이 된 먼 길 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함께 할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가족을 방문하여 이들이 교회 회원이 된 것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부심과 영을 느끼고 또한 이들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수백리라도 걸었을 것이다.” 이들은 축복받은 명예로운 개척자였다.

나는 1983년 성탄절 직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만난 한 여성을 기억하고 있다.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자매님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자매님은 우리에게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과 전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자매님이 보여준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위대한 개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진지한 느낌과 복음을 통해 얻은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신앙이 강화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떠야만 했다.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나는 예전부터 자매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매님도 우리가 길모퉁이를 돌아 그 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미래를 향하여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내 친구들 중에도 생각하는 개척자들이 많이 있다. 1984년 1월에 내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세실리아 자매를 만나 자매님이 일상 생활에서 독창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개척자적인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참으로 내게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세실리아 자매에게 “자매님께서서는 저의 선생님이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세실리아 자매는 “이제부터 제가 자매님의 선생님이 되었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자매님이 내게 가르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매님은 웃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저는 천천히 가르칠거예요.”

정말로 자매님은 천천히 가르쳤다. 나는 여러 달 동안 세실리아 자매의 이웃집에 살았는데 자매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평생 동안 고마워 할 것이다.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자신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위대한 여성과 다른 이웃들로 인해 더욱 훌륭한 개척자가 되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는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우선 순위와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 가진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교재에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서랍을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그 때 한 자매님이 “서랍이랑게 도대체 뭐죠?” 하고 질문을 하였다.

명예로운 개척자들인 수많은 위대한 말일성도들은 서랍을 본 적도 없고, 새로운 드레스를 못가져왔으며, 시간 계획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거울을 쳐다본 적이 없어도 승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를 걸어보거나, 혹은 상호부조회 본부 건물을 방문한 적이 없어도 해의 왕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동반자 앤 자매와 나는 세실리아 자매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립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갔다가 굉장히 놀랐다. 나는 건강과 위생에 관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갔지만 도리어 개인적으로 훌륭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다. 내가 이들에게서 배운 대부분의 교훈은 상호부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 세실리아 자매와 다른 자매들이 어떤 비상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그들은 분명히 축복받은 명예로운 개척자들이다.

샬리 피로벨로 자매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1972년 보건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갔을 때였다. 나는 자매님과 그녀의 남편이 첫 아기가 태어난 지 다섯 달 만에 아기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샬리 자매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있었으나 다시 임신을 한 자매님은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건강한 물론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나는 믿고 있는 진리에 따라 살려는, 그리고 새로운 관습과 전통을 수용하려는 그녀의 용기와 신앙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 후에 이웃 사람들이 내게 “물론 아기가 태어났어요!”라고 그녀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1973년 1월 20일에 건강하고 예쁜 “물론 아기” 사라 피로벨로가 태어났다. 아기 엄마가 지니고 있었던 개척자의 정신을 통해 그녀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 곧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외에 더욱 깊고 많은 지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샬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매님, 자매님은 구식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말했다. “하지만 자매님, 저는 그런 구식 사람은 아니예요!”

1984년 나는 열 한 살 된 “귀여운 공주” 사라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오랫동안 편지를 못드려서 죄송해요. 편지를 쓰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이 놀자고 조르는 바람에 그랬어요. 지금은 편지를 꼭 쓰려고 작정하고 연필을 들었어요. 엄마가

복지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가족 비축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기뻐요. 우리는 물을 정수해서 먹고, 식사도 균형있게 식단을 짜서 먹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자라는 비결이에요.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작은 공주가.”

나는 또한 사라의 엄마, 곧 나의 사랑하는 친구 샬리 자매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가르침이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저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들은 저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진리는 저의 자녀와 또 그들의 자녀와 후손 대대로 배우게 될거예요. 이제는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변화하는 데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 사랑의 실천

나는 1976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해서 중부 자바에 살고 있는 개척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사랑, 동정심, 봉사 등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부 수보요 회장이 인도하는 이들 상호부조회원들은 체구는 작지만 위대한 거인들이었다. 매일 아침 이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모든 자매들이 한 손가락 정도의 쌀을 떼어 따로 비닐 봉지에 모아 두었다가 매주마다 상호부조회로 가져왔다. 모임이 끝나면 자매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방문이 필요한 집을 선정하고는 궁핍한 사람들을 함께 방문하여 가져온 쌀봉지를 주며 자신들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헌납, 주님의 창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나는 내 입장에서 한 손가락의 쌀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회생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물론경에 이노스가 기록한 짧은 기사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이노스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주를 대할 것”(이노스서 1:27)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기쁨으로 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내가 개척이라는 것과, 그리고 봉사를 좌우명으로 삼고 사랑을 자신을 인도하는 별로 생각하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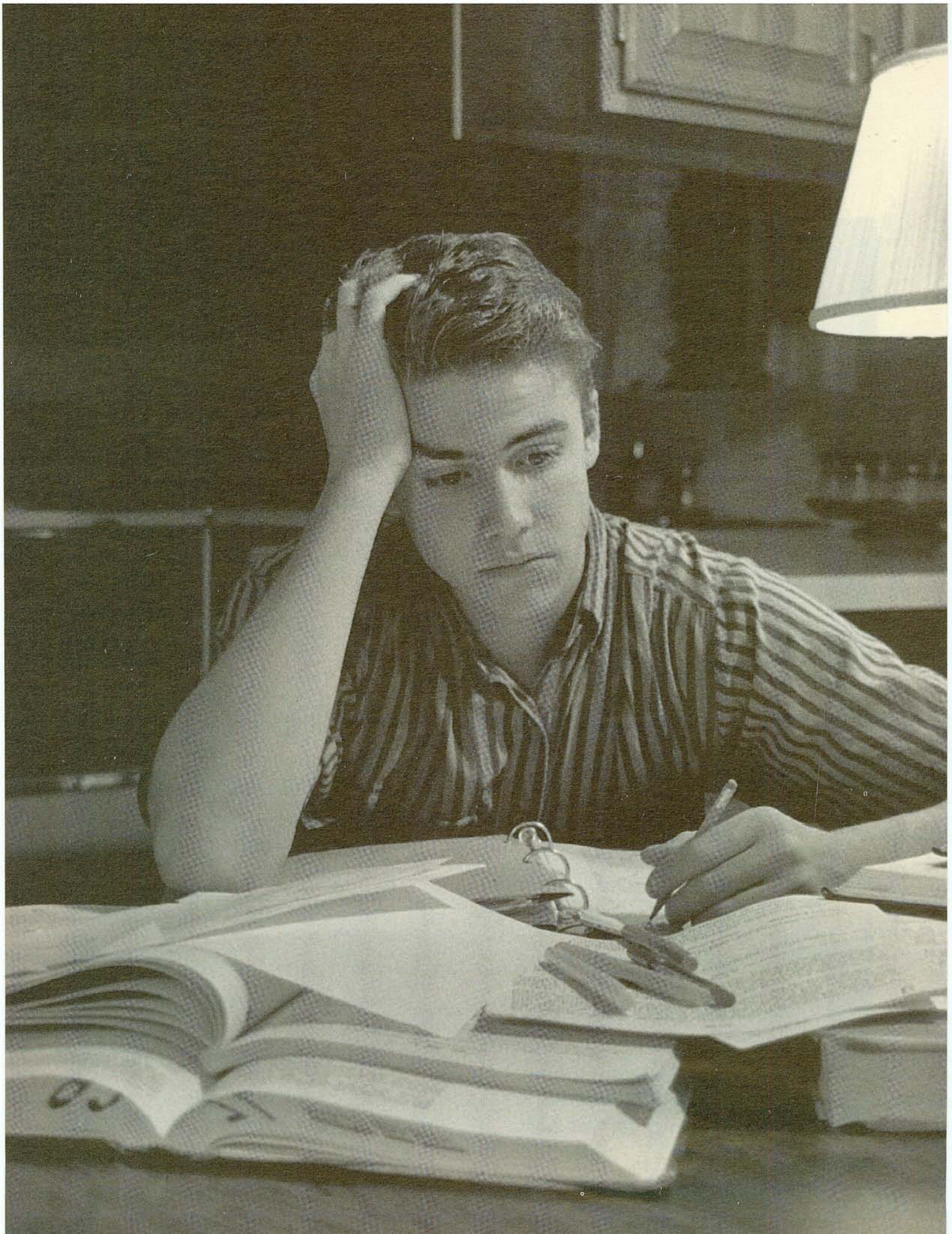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개척자이다.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들이 지닌 개인적인 황량한 미개척지를 건너야 하는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다양한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초기 개척자들처럼 우리들의 평원을 건너고,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들의 죽은 자를 묻고, 개인적인 슬픔을 이겨내고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며, 위로하고, 또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명예로운 개척자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모든 것을 실패하기 전에,

#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정음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을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제때에 일을 시작하지 않아 일을 끝내지도 못한 채 내버려두기도 하며, 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다가 제 자신을 가누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대답은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 우리들의 대답 :

일을 미루는 습관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하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하는데 필요한 인도와 지지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한 가지 일이 끝날 때마다 목록에 표시를 합니다. 일을 맡았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작은 달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나 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일들은 비교적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 크고 까다로운 일들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차근차근 합니다.

● 일이 끝났을 때는 자신에게 보상을 합니다. 즉 특히 어려운

일을 끝냈을 때, 휴식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 어려운 일이나 달갑지 않은 일을 게임처럼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20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집중한다면 더욱 많은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일하는 장소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음식물이나 텔레비전, 잡지, 전화, 그리고 기타 다른 유혹으로 인해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일을 완벽하게 끝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일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일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 스스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능력 이상으로 일이나 임무를 맡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동의했다면,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일을 끝낼 의사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일을 맡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정하십시오.

●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골로새서 3:23)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열성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취하십시오. 하루의 모든 순간 순간을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자유 시간도 갖고,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 독자들의 대답 :

만일 어떤 부름이나 임무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의깊게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때,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임무를 올바르게 달성했을 때 오는 느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또한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막론하고 앞으로 닥치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린느 엘베스 디 알마이다, 31세  
브라질, 레시페  
남서 스테이크, 코르다일로 워드

저도 주어진 임무를 실천하도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임무를 다시 맡게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항상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일을 시작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다면, 제가 할 일의 양을 떠나서, 또한 제가 영감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각 단계마다 일의 제한 시간을 정하여 계획이 시간적으로 차질없이 끝나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저의 임무를 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임무를 달성하고 싶은 저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제가 행한 노력에 대해 갖는 느낌도 더욱 커집니다.

일을 미루게 될 때, 이기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마사미 오타, 19세  
일본, 나고야  
나고야 스테이크  
노나미 지부

게으름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중대한 약점입니다.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곤잘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닌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기회를 더욱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성신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할 때, 시간을 더욱 잘 계획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조절할 때 꼭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할 수 있고 그것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사 배아트리스  
페레스 바우디노,  
19세  
베네주엘라, 카비마스  
시우다드 오헤다  
스테이크  
로스 라우렐레스  
와드

매일 저는 꼭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는 줄을 그어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비록 계획한 모든 일을 끝내지 못해도 시작했던 일들을 끝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낍니다.

샌드라 베르저  
독일, 하노버  
하노버 스테이크, 비러펠트 지부

저는 일을 미루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도 생각하고는, 커다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보다 훌륭하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갖고 저의 책임에 대해 명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일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밖에 다른 일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베로니카  
브이 바실리오,  
16세  
필리핀, 마닐라  
포시그 스테이크,  
타지그 와드

저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스무 가지나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일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는 일의 가지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점차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작한 모든 일을 끝낼 수가 있으며, 제 자신을 보다 잘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르멘 칸토스  
스페인, 자엔  
스페인 말라가 지방부, 자엔 와드



“게으름은 영생을 쪼먹는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곧잘 게을러지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보다 훌륭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은주, 18세  
대한민국, 대전  
청주 스테이크,  
선화 와드

우리의 지상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방법에 따라 생활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루게 될 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주님의 영향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파울라 폴라우 아로빌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저는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곤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미루고 있고,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는, 제가 진작에 했어야 마땅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느꼈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즐겁지 못하고 우울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같이 실망스러운 느낌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평화가 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제가 자신감과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결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며 제가 보다 훌륭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잠재력, 그리고 재능을 믿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잠재력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타 데이비드,  
19세  
브라질,  
포르탈레자  
스테이크  
아구아남비 와드

저는 제가 일지를 계속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저는 그날에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지기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더욱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목표들을 글로 써볼 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피셔 장로,  
23세  
독일 뮌히  
선교부  
뉘른베르크  
스테이크  
뉘른베르크 지부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 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3년 5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와 스테이크 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로 쓴다면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질문:**저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응답을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신의 속삭임을 제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이나 두려움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

# 마놀리의 첫 금식

캐롤 앤 보우먼 리베로

**우**리는 스페인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여러 해 동안 일 주일에 한번씩 가정 상호부조회를 가져왔습니다. 참석자의 대다수가 다른 교회 여성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호부조회 교재에 있는 교리상의 공과를 가르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영적인 생활 공과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그 여성들을 격려해 줄 주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기도와 금식에 관한 공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공과를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금식에 관해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영의 속삭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영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과는 잘 진행되었으며 많은 잘못된 생각과 의심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는 금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그 여성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모임에 간혹 참석하던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도 금식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 할 수 있고 말고요, 마놀리. 누구든지 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마놀리의 표정은 슬픔으로 괴로와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 병원에 이 년 동안 입원해

계신 것을 아시지요. 최근에 어머니의 병이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저와 제 언니도 알아보지 못해요. 어머니를 보러 가면 제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저는 마놀리에게 저도 마놀리와 함께 금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마놀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놀리의 언니는 마놀리에게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병원 직원이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진정제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겪었던 고통이 없어져 평화롭게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마놀리는 어머니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놀리를 기억하시고 두 자매의 어머니의 죽음을 위해 두 자매를 준비시킨 공과를 하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



김혜경

# 염려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함

**모**든 생물은 성장하는 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빛과  
 양분과 물이 없다면  
 묘목이 결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영양분은 또한 인간의  
 영혼의 성장에도 필수적입니다.  
 양육하는 것은 먹이고 키우고 받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식과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을 신체적으로  
 양육하며,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키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양육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여러 시간 동안 우정을  
 나누며 보내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성급한 어부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젊은  
 부자에게 조인하셨으며 약한 자를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친절하게도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려는  
 욕망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말로, 모범으로, 또한  
 부드러운 몸짓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도움을 주는 것과 그들을 위해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평하지 않고  
 염려해 줄 수 있음**

역경과 싸우며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평하거나  
 그들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원의 잡초를 뽑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잘못을 제거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대신



삽화: 로리 연더슨 뎀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미소를 짓거나  
 고맙다는 표현을 하거나 혹은 기꺼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과 같은 작은  
 행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은 자신과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슬프고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와드에서 저와  
 함께 봉사하던 청년인 리라가 저의  
 아파트를 찾아와서 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의 절망에  
 빠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리라가 저를  
 방문하러 오고 또 왔습니다. 리라의  
 우정은 저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리라의 우정은  
 저를 격려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필요 사항을  
 아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때는  
 언제인가?

•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한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그러한  
 종류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통해 아들 엘마는  
 영적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사이아서 27 : 8~14, 20  
 참조)

열 여덟 살에서 서른 살에 이르는  
 자녀들을 둔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부부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방문한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간증의 부족으로  
 괴로와하며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미루고 있던 한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라고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매번 성전을  
 방문한 뒤마다 아들의 인생에 변화의  
 불꽃이 일었으며 곧 간증의 불꽃이  
 선교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게 밝게  
 불탔습니다.” (엔사인, 1992년 3월호,  
 71쪽)

• 영적인 양식을 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었던 때를 회상할 수  
 있는가?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

# 존 테일러



리안 알 하츠혼

**예** 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이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 장로는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렀다. 얼마 후에 요셉과 하이람은 죽었고 테일러 장로는 총알이 그의 회중 시계에 맞아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 극적인 사건이 아마 존 테일러의 생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순간일 것이다. 그는 후에 교회의 세 번째 대관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대담하고 거리낌 없는 신앙이나 교회의 저널리스트이자 선교사로서의 지극히 성공적인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마 존 테일러 대관장의 성격은 청년 시절에 그에게 주어진 애정어린 두 가지 별명인 “신앙의 수호자”와 “자유의 투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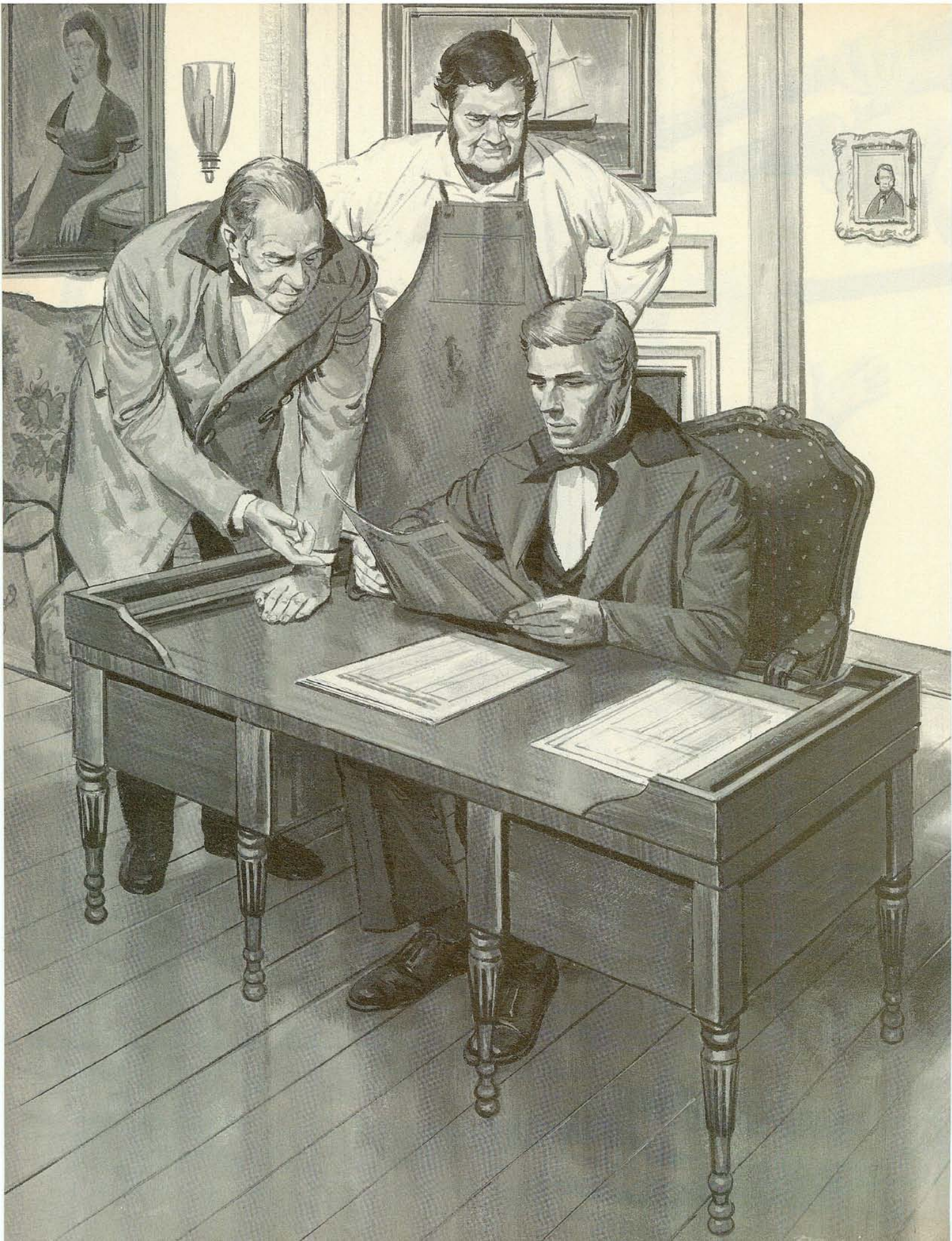
무엇이 적의를 품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공연히 자기를 해치라고 하고 게다가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서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존 테일러는 초기 청년 시절부터 주님과 복음에 대한 태도에서 그러한 특성들을 키워 나갔다. 1808년 11월 1일, 영국의 밀른도르프에서 출생한 존 테일러는 소년 시절부터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판으로 나가 덩불 뒤에 몸을 숨기고 주님께 엎드려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소년들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께 간구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설교집 5: 314~315쪽)

존 테일러는 열 여섯 살 때 감리교회에 입교하였고 열 일곱 살 때는 평설교자로 임명되었다. 후에 그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비 에이치 로버츠, 존 테일러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북크래프트, 1963년, 28쪽) 그는 23살인 1832년에 캐나다로 이민갔다. 토론토에서 그는 레오노라 캐넌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녀도 역시 영국에서 건너왔다. 그는 계속 감리교회에서 설교하였으나 감리교회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가졌다. 테일러 가족과 몇몇 친구들은 종교적인 연구 그룹을 조직하였으며 신약 시대와 같은 기독교의 회복을 간구하였다. 그러는 한편 존은 영국에서 배웠던 직업인 가구 제작업과 목재 선반 가공업에 종사하였다. 테일러는 몇 가지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브리감 영이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편집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존 테일러는 수많은 신문과 잡지와 책자와 팜플렛을 편집하고 저술했다. 또한 그는 교회의 초기 시절에 중요한 교리서도 저술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1836년에 팔리 피 프렛은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고 토론토에 도착했다. 프렛 장로가 캐나다에서 행한 선교 사업에 관해 히버 시 킴블 장로는 “이 선교 사업의 결과를 통해 충만한 복음이 영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로버츠, 35쪽 참조) 프렛 장로는 토론토에서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존 테일러에게 가져갈 소개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테일러의 집을 방문했을 때 테일러 가족들은 정중했지만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후에 프렛 장로는 그 도시의 성직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 떠날 준비를 했다. 손가방을 들고 존 테일러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테일러의 종교 연구 그룹의 일원인 한 이웃 사람이 들어와 프렛 장로에게 그녀의 집에서 설교를 하라고 했으며 또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존과 레오노라는 프렛 장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존은 그의 느낌을 같은 연구 그룹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교리를 충분히 조사했으며, 그들이 모두 그릇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물론 교리를 조사해 보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프렛씨는 우리의 견해와 일치되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가 주장하는 교리와 권능에 대하여 좀더 조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조사한다면 기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 종교가 진실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임을 발견하면 나도 이 종교를 버리겠습니다.”(로버츠, 38~39쪽)

존 테일러는 3주 동안 프렛 장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은밀히 경전과 비교해 보았다. 프렛 장로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확신하자 존과 레오노라는 교회에 입교하였다. 28살이었던 존은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캐나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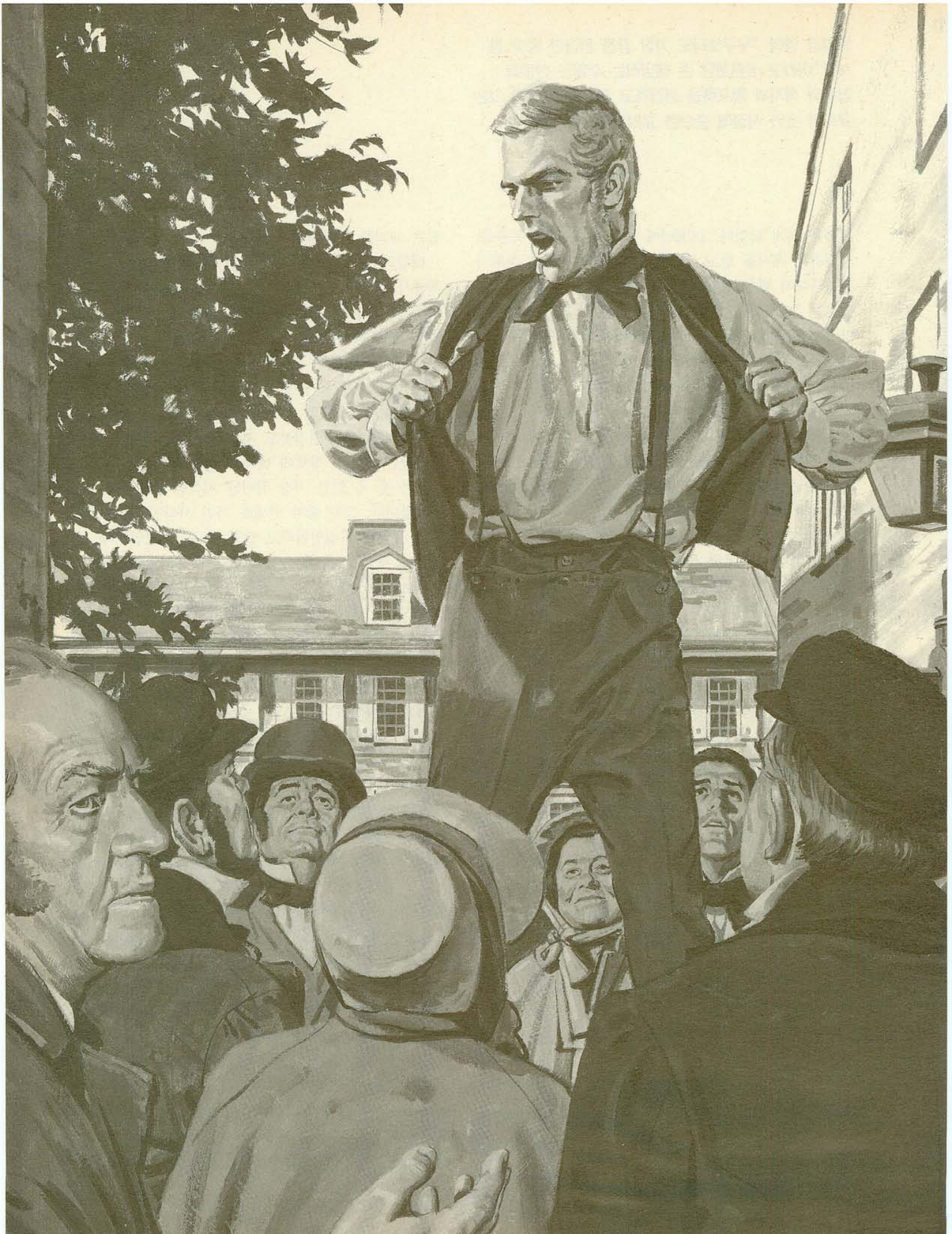
있는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다.

테일러 형제는 토론토에서 친구와 이웃 사람을 많이 개종시켰다. 침례받은 지 일 년 후 테일러 가족들은 미주리주, 파웨스트로 이사갔다. 다음 해인 1838년 12월 19일 만 30세인 그는 사도로 성임되었다.

4년 후에 테일러 장로는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던 교회 신문, *타임즈 앤드 시즌즈*의 편집인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몇 해 동안 그는 수많은 신문과 책자와 팜플렛을 편집하고 저술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테일러 장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유력한 편집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꼭 드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편집인 중 한 사람입니다.”(설교집, 4:34) 1882년에 대관장으로 봉사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속죄*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경전에 대해 설명하고 구세주와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강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테일러 장로는 그의 생애 동안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함으로써 청중을 감동시키는 강한 연사로서도 상당히 유명했다. 그는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이 그의 고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왔다. 대영제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일할 때 그는 리버풀, 맨 섬, 아일랜드에서 선교 사업의 문을 열었으며, 후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지휘했다. 그는 또한 두 가지 국제적인 교회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의 *라뜨왈*(“별”)과 독일의 *쾨른즈 파니에르*(“시온의 기”)이었다.

테일러 장로는 또한 나부에 정착했던 성도들과 후에는 서부에 정착한 성도들을 돕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한 후, 존 테일러는 팔리 피 프렛 장로가 1847년 가을에 1,500명의 성도를 이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것을 도왔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해 동안 판사와 입법가와 교장으로 봉사했다. 1877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사망하자 69세의 존 테일러는 그때부터 188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옥외 집회에서 타르칠을 당하고 깃털을 꽂힐 상황에 놓였을 때 존 테일러는 조끼를 찢히고 적들에게 외쳤다. “자, 신사 여러분 타르와 깃털을 갖고 이리 오십시오. 희생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음 사건은 그를 좀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일러 장로가 젊은 사도였던 시절이었다. 그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근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러 갔다. 말씀을 하러 나가기 얼마 전에 몇몇 성도들이 그에게 그곳 사람들이 테일러 장로가 말씀할 장소에서 모이기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 성도들은 테일러 장로가 타르칠을 당하고 깃털이 꽂히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하러 가지 말라고 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가겠다고 했으며 친구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최근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 캐나다에서 왔다고 먼저 설명했다. “신사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까지 인류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축복 중의 하나인 생각하고 말하고 쓸 권리, 즉 그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선택하고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싸워서 얻은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주변에서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맹세했던 고귀한 선조들의 후손을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우연히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견해 때문에 저에게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으려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조들에게서 상속받은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피흘려서 얻은 축복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희생물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여신에게 바칠 제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조끼를 뒤로 찢히고 이렇게 말했다. “자, 신사 여러분, 타르와 깃털을 갖고 이리 오십시오. 희생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선조들의 영이 타락한 후손들의 행동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아무도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키가 거의 2미터나 되는 테일러 장로는 위엄있으면서도 도전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당당히 서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세 시간 동안 말씀했다! 말씀이 끝나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나아와서 주민들이 적의를 품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로버츠, 53~55쪽 참조)

또한 그의 용기있는 신앙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때도 나타난다.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어렵게 여행하여 뉴욕에 도착했을 때 존 테일러 장로에게는 1센트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팔리 피 프랫 장로가 그에게 와서 물었다.

“테일러 형제님,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면서요.”

“네, 프랫 형제님. 사실입니다.”

프랫 장로는 “그런데 저는 지금 경교의 음성과 복천년의 시를 출판하려고 하는 데 돈이 몹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삼백 달러를 대주신다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팔리 형제님. 형제님께 도움이 된다면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테일러 장로는 주머니에서 일 센트 동전을 꺼내어 프랫 장로에게 주었다.

둘다 실컷 웃은 뒤 프랫 장로는 “하지만 저는 형제님이 돈이 많다고 말한 걸로 아는데요.”라고 말했다.

“네. 많이 가졌죠”라고 테일러 장로는 대답했다.

“저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형제님은 저에게 충분한 음식과 훌륭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 센트를 갖고 있겠다, 빚도 없겠다, 그러니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 밤,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모였을 때 프랫 장로는 테일러 장로의 여행 경비를 보조해 주자고 제안하였다. 테일러 장로는 돈이 있다면 자기 대신 가족을 부양하고 책을 출판할 돈도 필요한 프랫 장로에게 주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월포드 우드럽이 테일러 장로의 말에 반대했다.

두 명의 충실한 형제들이 그들 사이의 심한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존 테일러 대관장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게 해서 영을 통해 화해하게 했다.

테일러 장로는 “그 일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여행 경비를 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후 주님의 영에 감화받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테일러 장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들의 경비까지 낼 수 있는 기부금을 충분히 받았다.(로버츠, 72~74쪽 참조)

그의 글과 말과 행동 속에는 탁월한 용기와 대담함이 배여 있었다!

존 테일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였으며 그들에 대해 깊은 사랑을 지녔다. 한 번은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두 명의 나이든, 충실한 형제들이 그들 사이의 심한 불화 때문에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테일러 대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테일러 대관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 달라고 했다.

테일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님들, 제가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형제님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고 또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테일러 회장은 그들에게 노래를 한 곡 불러 주었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서 그는 시온의 노래를 들으면 한 곡 더 듣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두번째 곡을 부르고 나서 테일러 회장은 홀수가 행운의 번호라는 말을 들었다고 재치있는 말을 했다. 그들이 동의하자 한 곡을 더 불렀다. 그런 다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 형제님들, 형제님들을 지루하게 해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허락하신다면 한 곡만 더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마지막 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그후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테일러 회장이 네 번째 노래를 끝내자, 두 형제는 일어서서 서로 악수를 하더니 테일러 회장에게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그들이 어떤 문제로 다투었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가버렸다. 테일러 회장의 노래가 그들의 마음을 풀어 주었던 것이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0년 7월호,

522쪽 참조)

또 어떤 지부에서 회원들 사이에 불화가 커진 경우도 있었다. 후에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 후 참석한 몇몇 회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나는 자신들의 불만을 털어놓으려고 왔던 사람들의 감정이 좋아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의 불만을 말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그들이 지녔던 나쁜 느낌과 좋지 못한 영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느낌들을 그들에게서 지워버렸으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옳음을 알았다.”(설교집, 21:366~367쪽)

존 테일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는 자유의 투사로 알려졌지만 예언자로 있을 때 성도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시간을 숨어서 보냈다. 결국 그는 많은 지역의 성도들에게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주하도록 지시했다.

어려운 시기에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임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련이나 역경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이고 어둠이 뒤덮이고 악의 영이 날뛰며 악의 영향이 저의 생과 성도들의 생을 시험한다 해도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이니... 그대로 맡기십시오.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꿇어질 생각입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면 그대로 되게 하고 전쟁을 위한 것이면 또 그대로 맡기십시오.”(설교집, 5:114~115, 122)

다행히 그 충들은 평화스럽게 결말을 맺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존 테일러의 용기있는 정신이 없었다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용기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간다는 진리를 명백하게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영향을 미칠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도 모범이 될 것이다. □



## 존 테일러에 대한 주요 사건, 1808-1887

연도	나이	사건
1808	—	11월 1일에 영국 밀른도르프에서 출생.
1822	14	통 제조업자와 목재 선반 가공업자로 일함.
1824	16	감리교회 신도가 됨.
1832	24	캐나다로 이주.
1836	27	침례받고 장로로 선임되어 캐나다의 교회를 관리함.
1838	30	12월 19일에 사도로 선임됨.
1839~41	31~33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수행함.
1842~46	34~37	타임즈 앤드 시즌즈의 편집자로 봉사함.
1844	35	요셉 스미스가 순교할 때 카테지 감옥에서 증상을 입음.
1846~47	37~38	영국에서 두번째로 선교 사업을 수행함.
1847	38	성도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끌어 감.
1849~52	41~44	프랑스와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관리함.
1855~57	47~49	동부에서의 선교 사업을 관리함.
1857~76	49~68	유타 지역 입법부에서 일함.
1877	68	8월 29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됨.
1878	69	8월 11일에 초등협회를 조직함.
1880	71	10월 10일에 대관장으로 지지됨.
1885	76	2월에 미국 정부의 박해 때문에 은둔 생활로 들어감.
1887	78	7월 25일, 유타주 케이스빌에서 사망.

# 올리비오 고미즈 만월

## 성공의 비결

리사 에이 존슨

리사 에이 존슨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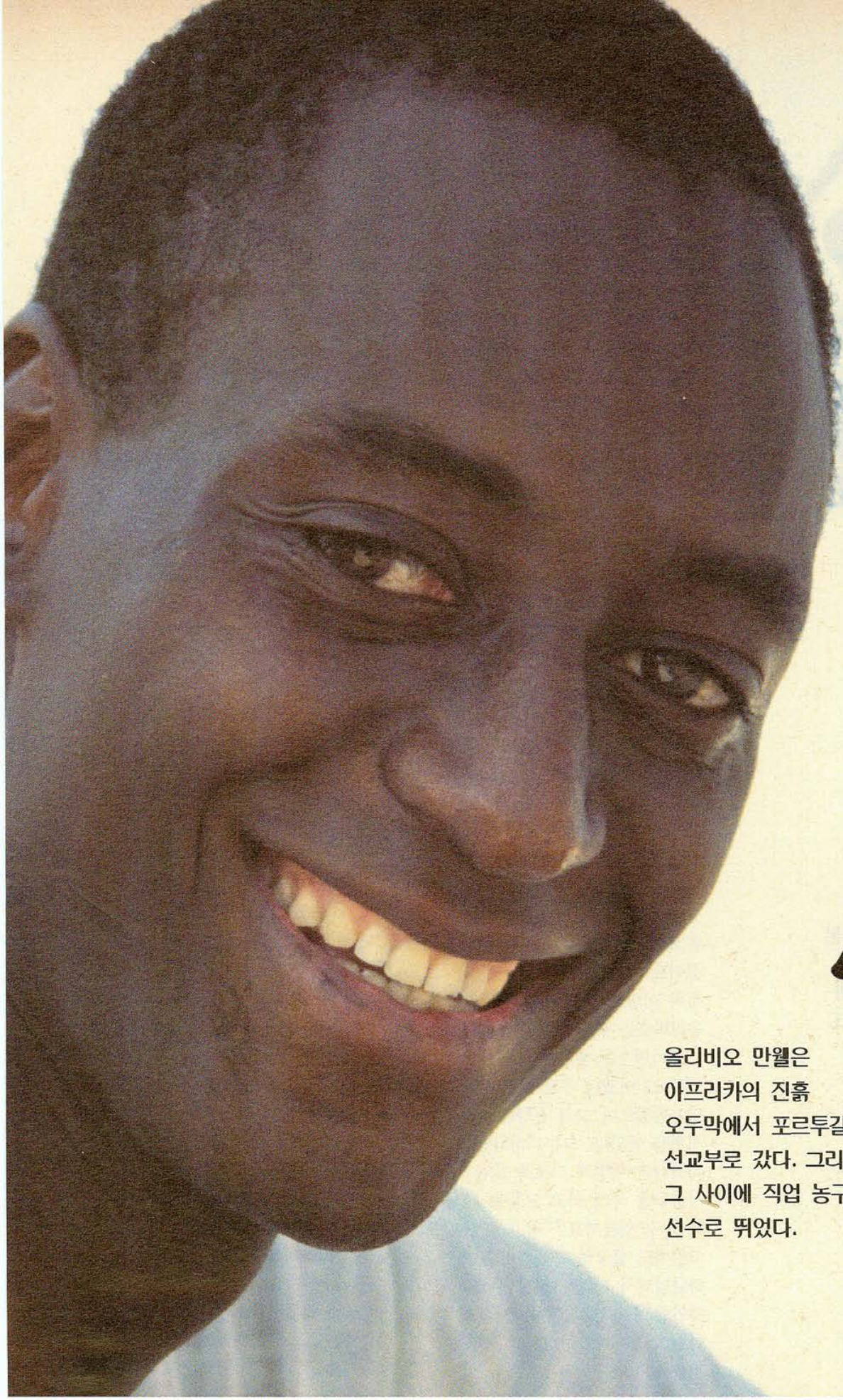
**여** 리분 모두 커다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운동 선수가 되어 부와 명성을 얻은 가난한 젊은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지만 그것은 더욱 악조건에서 시작되어 마침내는 더 좋게 끝난다. 불가능하게 들린다고요? 그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올리비오 고미즈 만월은 앙골라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다. 그와 그의 일곱이나 되는 형제 자매들은 진흙으로 벽을 쌓고 풀로 지붕을 이은, 방이 두 개 뿐인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전기나 수도는 알려지지도 않은 지역이었다.

올리비오가 아홉 살 때 그 나라에는 수천 명이 죽거나 실종된 격심한 내란이 일어났다. 그 전투가





올리비오 만웰은  
아프리카의 진흙  
오두막에서 포르투갈의  
선교부로 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직업 농구  
선수로 뛰었다.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청년을 본  
것은 포르투갈에서  
농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었을 때였다.  
그들은 그와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거의 끝나갈 즈음, 기근이 앙골라 전역을 휩쓸어서 또 수천 명이 기아로 죽었다. 올리비오는 그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좋은 생활은 아니었어요.”라고 말한다. 말을 절제하는 것은 그의 특성이다.

그러나 올리비오는 그의 엄청난 키와 민첩함 때문에 기아에서 구제되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농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던거죠.”라고 그는 말한다.

열 한 살 때에 올리비오의 키는 거의 2미터가 되었다. 그는 약 2년 동안 직업 선수로 뛰고 있었다. “직업적”이란 말은 그가 속한 농구 팀을 후원해 주는 회사가 때때로 시험 기간 중에 음식을 먹여 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몇 주 동안이 올리비오가 유일하게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때였다.

그리고 시험을 위해 원정을 떠날 때가 가장 좋았는데 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올리비오는 나이지리아, 자이레 그리고 심지어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경기를 했다. “열흘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음식을 살 돈을 받았죠. 그 돈으로 가족들의 옷과 신발을 샀어요. 앙골라에서 옷을 사기란 무척 어렵죠. 너무 비싸거든요.”라고 올리비오는 말한다.

올리비오는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부모에게 양육받았으나 그의 신앙은 여러 번 시험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 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올리비오는 열 일곱 살 때 앙골라 육군 농구 팀에서 뛰었다. 앙골라의 모든 소년들은 일정치 않은 어느 기간 동안 군대에 가야 했다. 올리비오는 또한 국가 대표 팀에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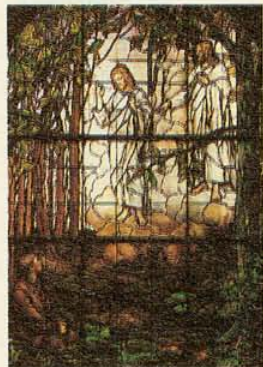
올리비오가 포르투갈에서 농구를 하겠다는 꿈을 갖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는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앙골라는 이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며 포르투갈어는 앙골라의 공용어이다.) 게다가 포르투갈에서 직업 선수의 월급을 준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올리비오가 비자를 받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그러나 포르투갈에 도착해서 그를 원하는 직업 농구 팀을 찾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렸을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2미터의 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또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는 데는 불과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그 두 청년을 보았습니다. 청년이었는데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이 제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복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한 얘기는 무척 놀라웠지만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저는 어떤 대회에 참석했으며, 그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죠. 저는 선하게 살았지만 제게도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리비오는 침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 그는 농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있었다. “저는 항상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요셉 스미스에 대한 얘기는 무척 놀라웠지만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어떤 대회에 참석했으며, 그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물고기가 타고난 수영 선수인 것처럼 올리비오도 타고난 농구 선수이다. 그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곳에 가면 언제나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든요. 그것은 좋게 느껴졌어요.”

약 일 년이 지난 어느날 올리비오가 속한 농구 팀의 한 미국인 선수가 “어이, 너 몰몬이지? 몰몬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지 않니? 너도 팀을 떠나 선교 사업을 하러 갈거지?”라고 말했다.

그것은 올리비오가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제가 배운 것들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구를 그만 둔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올리비오는 국가 대표 팀이 된 지 얼마 안되었고 또 그가 속한 직업 팀에서는 그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 조건, 즉 높은 보수와 차와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내걸었다.

농구를 그만 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축복문에는 제가 주님을 섬기러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죠.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오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농구에 대한 이런 재능을 주심으로써 제가 복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농구를 그만 두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 남부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약 2년 전에 북 포르투갈을 떠났던 올리비오 고미즈 만웰 장로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는 좋은 성품과 부드러운 미소와 일에 대한 열성, 그리고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등으로 선교부에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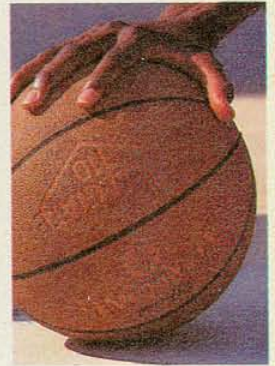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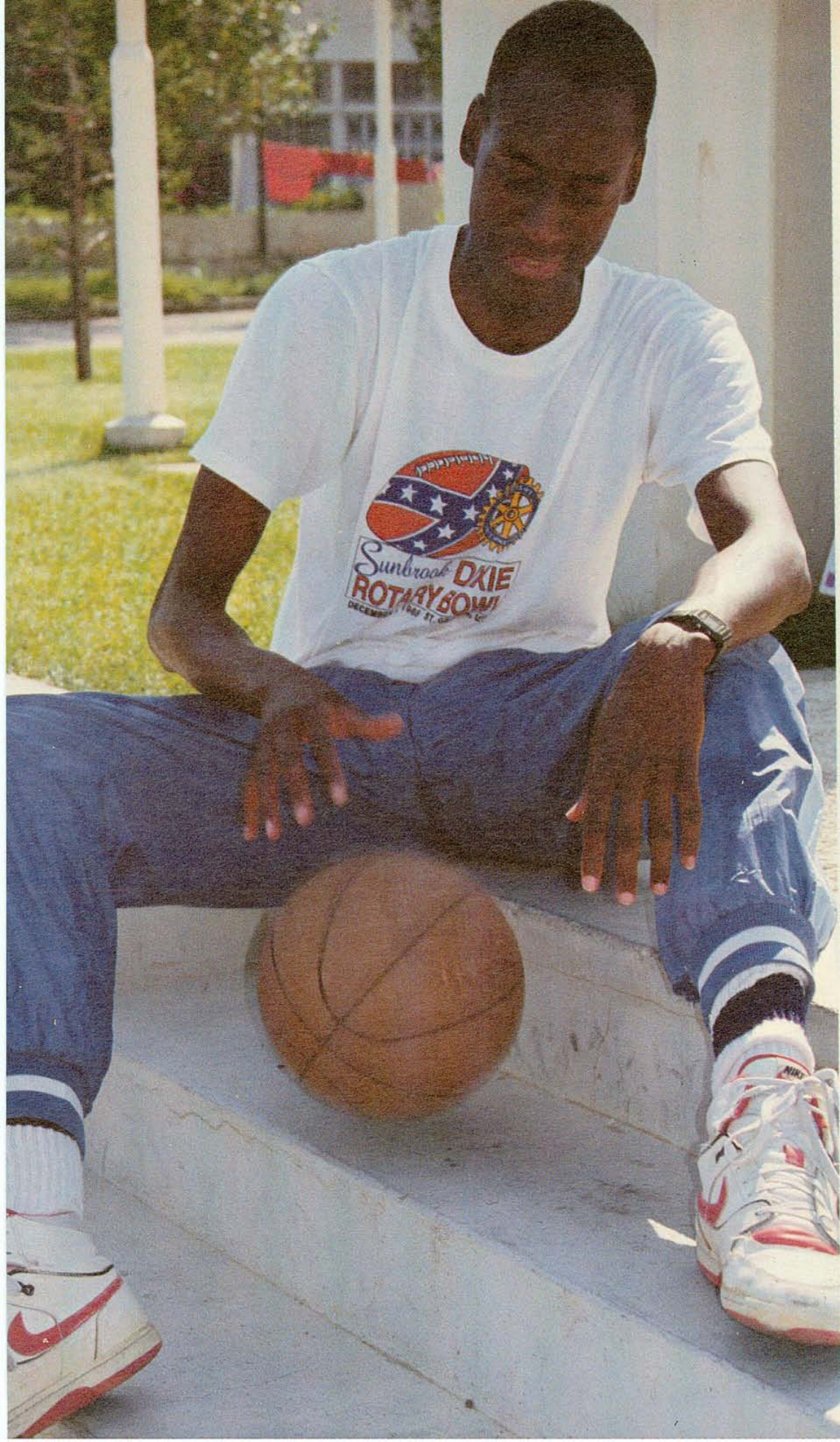
그것은 사람을 텔레비전 스타로 만들어 주는 류의 명성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스타로 만드는 더 중요한 명성이다. 그리고 올리비오는 어마어마한 계약과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자기가 받을 영원한 보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쉬는 날에 그가 농구공을 잡으면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코트를 활주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물고기가 타고난 수영 선수인 것처럼 그는 타고난 농구 선수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그는 선교 사업을 끝내자마자 대학 교육비를 벌기 위해 농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다음엔 “앙골라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만웰 장로는 거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퀴본도라 불리우는 아프리카 방언인 자기의 모국어도 할 줄 알고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능숙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만웰 장로의 키만큼 긴 성공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직업 농구 선수도 돈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인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명성도 소용없을 것이다.

만웰 장로는 이미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의 비결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시죠.” □





올리비오는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의 비결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시죠.”



# 마음의 변화

마빈 케이 가드너

“그 래, 이제까지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 주었어.” 카를로스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난 그들이 얘기해 준 것들을 안 믿어. 또 앞으로도 요셉 스미스에 대한 것을 결코 믿지 않을 거야!”

카를로스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다. 전문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토목 기사인 카를로스는 중요한 직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파라구아이, 아순시온에 있는 여러 상류 사교 클럽의 회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사에게는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계속 남편에게 한번 더 교회에 관심을 가져 주도록 간청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었다. “저는 올면서 남편과 논쟁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는 그러한 것에 지쳐서 짐을 꾸리고 나가버렸어요!” 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이제 카를로스가 직접 설계하여 만든 아름다운 집에는 그녀와 세 자녀만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

마리아 테레사 암브라스스는 12살 때인 1961년에 어머니와 네 언니를 따라 침례받았다. 그들은 파라구아이의 초기 회원에 속했다. 마리아는 카를로스 알베르토 로이그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말일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당시, 아순시온에는 결혼할 만한 젊은 남자가 거의 없었다. 카를로스는 검은 곱슬머리의 예의바르고 잘 생긴 청년이었으며 훌륭한 학벌과 유망한 직업을 갖고

파라구아이, 아순시온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앞줄: 안드레아(4세) 산드라(6세), 두째줄:베로니카(14세), 카를로스, 마리아, 마르셀로(12세). 뒷줄: 나탈리아(17세), 카롤리나(21세), 카롤리나의 남편 가브리엘 켈라.

있었다. 마리아는 예쁜 금발의 유럽계 후손이었다. 그들은 잘 어울리는 짝이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차로 그녀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었으며 또 모임이 끝나면 다시 와서 그녀를 집으로 태워다 주었다.

그들이 1970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후 마리아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교사와 보조 조직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카를로스는 계속 우리를 교회에 태워다 주고 모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곤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자매님의 남편은 언젠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될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교회의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결혼 생활의 초기 단계부터 마리아는 카를로스가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에게 교회 책을 읽어 주었죠. 복음은 제게 너무나 흥미있고 중요했으므로 저는 그것을 꼭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알았던 것을 남편도 알기를 바랐던 거죠.”라고 말한다.

카를로스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듣고 있던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남편에게 교회에 관한 책을 아주 많이 읽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종교에 관해 얘기를 나누면 그는 자신이 말일성도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종교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종교를 바꾼다는 것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때때로 마리아의 간청 때문에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것에 관해 실랑이를 벌였어요.”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다행히 카를로스는 환김에 집을 나간 이틀 후에 다시



카를로스가 개종을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주어진 약속에 대해 계속 희망을 가졌다. 그녀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가정을 유쾌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사교 클럽에서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라고 카를로스는 말한다. 대신 그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돌아왔다. 그리고 그 직후에 마리아의 마음과 남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변화시킨 어떤 일이 일어났다.

“파라구아이에 처음으로 축복사가 성임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요청했습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주님은 만일 제가 교회의 다른 부름들과 함께 아내와 어머니와 하나님의 딸로서의 저의 사명을 완수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인봉받게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그것에 관해 울지 말라고 하셨죠.(어떻게 그 축복사는 제가 그것에 관해 이전의 모든 시간을 울면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카를로스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얘기하자 그는 비웃으며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그러나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큰 신앙과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교회에 관해 남편에게 다시는 간청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축복사의 축복에서 제가 하도록 요구받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가정을 유쾌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며 교회의 모든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교회의 모임과 활동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카를로스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이들과 저는 가정의 밤 모임을 가졌으며 그것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함께 하자고 했죠. 가족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남편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카를로스는 기도하는 차례가 되면,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리아는 또한 카를로스가 십일조를 내게 되는 날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다. “저는 남편에게 여분의 수입 중에서 십 퍼센트를 제게 달라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의 십일조와 함께 바쳤죠. 저는 남편이 그 십 퍼센트의 돈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었던 거예요.”

어느 목요일 아침, 마리아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카를로스가 다시 선교사와 토론하도록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에 금식을 시작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두 명의 선교사가 뜻하지 않게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선교사가 저희 집을 방문한 지 꽤 오래되었던 때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카를로스를 위해 금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자매님, 저희도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남편에게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면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에 오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때가 카를로스가 일을 마친 후 아무 클럽에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월요일에 마리아와 그 선교사들은 다시 금식했다. 마리아는 카를로스에게 선교사가 오는 것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카를로스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클럽에 테니스를 치러 가겠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월요일에 테니스를 하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틀림없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남편을 붙잡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은 클럽으로 가버렸어요.”라고 말한다.

오후 6시 30분에 선교사들이 집으로 왔다. 마리아는 난처함과 실망감 때문에 울면서 그들에게 카를로스가 집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린 그를 위해 금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죠?라고 말했다.

한편 카를로스 와 테니스를 치기로 했던 사람은 그곳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테니스를 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함께 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회상한다.

선교사들은 그때까지 집에 있었는데 카를로스는 몇 가지 이유로 그들과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때부터 6개월간 진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힘든 6개월이었다. 마리아는 “선교사들이 남편을 가르치는 동안은 영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나면 영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카를로스도 본래대로 돌아갔구요. 저는 남편을 위해 자주 금식했어요.”라고 말한다.

“저를 가르쳤던 우루구아이 장로는 제 성격과 똑같았어요. 우리는 많은 토론을 했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가 대답하면 저는 그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겼죠. 저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원했으며, 그는 많은 것들을 명백하게 밝혀 주었어요.”라고 카를로스는 말한다.

“그런 다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두 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었죠. 술도 끊고, 카톨릭 서적 몇 권을

사서 전부 연구하고 카톨릭 신부인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말일성도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한 권 구했죠.” 그는 얼마 동안 일을 떠나 연구하고 명상할 조용한 장소를 찾고 싶어했다.

그때 마치 연락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친척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있는 그녀의 집을 두 주 동안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곳은 그가 원했던 바로 그런 은신처였다. “저는 본격적으로 읽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관한 책도 읽었고 교리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것이 틀림없이 참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어요. 다만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정을 못내리게 하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의아했죠. 어느날 밤, 침실에서 저는 성경과 물문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려 하면 우리가 죄지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성구를 발견했습니다.(니파이삼서 12:23~24 참조) 그 성구는 실제로 저로 하여금 난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했죠.”라고 카를로스는 말한다.

갑자기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살아 오는 동안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나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하고 성실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 순간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리, 즉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모두 알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열렸던 거죠.”



카를로스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방이 많이 있는 집을 설계하여 지었다. 그는 집이 완공되었을 때 그것을 헌납하였다. 그는 “이곳에는 사랑의 영과 행복한 기운이 감돌죠. 이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울거요. 그리고 냉담하게 될거요.’ 저는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저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내가 보여 준 이해심과 사랑과 충실함은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다소 사람 사울이 생각났는데, 그는 방문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제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80도로 달라진 거죠.”

카를로스는 그 직후인 1984년 2월 14일에 침례받았다. 1년 후 그와 마리아와 자녀들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는 “아내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이 이루어졌어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약속도 성취되었다. 여러 해 전에 베로니카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유아 축복을 해주기 위해 베로니카를 교회로 데려갔다. “그때 한 선교사가 제게 ‘이 아이가 여덟 살이 되면 자매님의 남편이 침례를 베풀어 줄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베로니카는 일곱 살이었다. 그 다음해에 카를로스는 베로니카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침례받은 후 카를로스는 곧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았다. 6개월 후,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침례받은 지 1년 후에 그는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받았다. 다시 6개월 후에는 감독이 되었다. 침례받은 지 4년 후에는 파라구이이 아순시온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카를로스는 지금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교회에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쏟으며 봉사하고 있다.

교회 회원이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희생이 따랐다. “제가 침례받았을 때 육군 장교였던 저의 아버지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며 제가 마치 가족을 배반한 것처럼 취급하셨습니다. 또 형제들도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카를로스의 어머니는 그가 침례받기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복음을 연구해왔다. 그의 어머니는 개종하였으며 침례 날짜도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침례를 받는다면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올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침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후에 카를로스의 아버지는 중병이 들었다. 카를로스는 아버지와 함께 며칠을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카톨릭 사제가 종부성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지 않겠소. 아들과 함께 있겠소.’라고 하셨어요. 그 사제는 ‘종부성사는 꼭 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뇨, 카를로스야 종부성사를 하겠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카를로스,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내 인생은 바뀔거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성전 사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카를로스야 마리아는 1남 5녀를 두고 있다 카롤리나는 스물 한 살로서 가브리엘 첼라와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나탈리아는 열 일곱 살, 베로니카는 열 네 살, 마르셀로는 열 두 살, 산드라는 여섯 살, 그리고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촬영



안드레아는 네 살이다. 카롤리나는 “아빠가 교회 회원이 아니었을 때의 일들이 생각나요. 지금 아빠를 보면 종종 감정이 폭발쳐 올라요. 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라고 말한다.

나탈리아도 동감한다. “아빠가 화가나서 집을 나가셨던 날, 우리는 몹시 울었어요. 저는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늘 가깝게 지냈고 또 엄마는 항상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건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아빠를 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산드라가 태어난 후 의사는 마리아에게 더 이상 아기를 갖지 않도록 조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였으며 둘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아기를 가졌을 때 의사는 그 아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저는 마리아에게 여러 차례 신권 축복을 해 주었고 또 마리아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아무런 문제없이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했죠.” 로이그 부장의 말이다.

축복은 몇 곱으로 계속 주어졌다. “아이들이 한 명씩 더 태어날 때마다 저는 더 많은 일거리를 받았고 제 급료도 더 늘어났어요. 제 축복문에는 제가 가진 훌륭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많은 것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카를로스가 교회에 들어온 지 일 년이 지난 후 그와 마리아는 늘어난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좁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더 큰 집을

설계하여 새로 지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와 친구들을 위해 방이 많이 있는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다. 나탈리아는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으며 베로니카는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 마르셀로는 바깥에서 코커 스파니엘 종 개인 알피와 놀고 있다. 그리고 산드라와 안드레아는 인형들에게 파티를 열어 주고 있다. 손님들은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뒷뜰에는 바베큐, 기와 지붕 달린 테라스, 트램폴린, 그리고 수영장이 있다. 정원은 야채와 파인애플과 사탕수수 나무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나무들마다 바나나, 오렌지, 구아바, 아보카도, 망고 등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카를로스는 집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의 집을 헌납하였다. “이곳에는 사랑의 영과 행복한 기운이 감돌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해졌어요.

“이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아슬아슬한 순간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섬짓해 한다. “이제는 사교 클럽에서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대신 가족과 함께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저는 스테이크의 회원과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40년이란 세월을 허비했어요. 이제는 주님께 그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로이그 자매는 “카를로스는 제가 아는 교회 회원 중 가장 훌륭한 회원이에요. 남편은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사랑해요. 남편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옹호자예요.”라고 말한다. □

# 나는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입니까?

페트리아 켈리

**집** 안에 갇혀 있는 여자. 책 목록에서 그 제목이 계속해서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 그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인가? 저는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렸습니다. 그것은 1900년대 초에 남부 미국에서 살던 한 여자가 쓴 일기로, 그 여자가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대접하고 연로한 부모를 모시면서 쓴 그녀의 바쁜 생활에 대한 정겹고 아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비슷한 사람으로 착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글은 자녀들의 조그만 성취에 대한 기쁨과 치통과 귀앓이에 대한 걱정, 봄에 처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등 제 자신의 생활과 비슷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분명 글쓰는 데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을 개발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활 환경은 겨우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확장되는 정도로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로 보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만 갇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제 가정의 벽과 지붕은 제 개인적인 쫓불을 덮고 있는 되말과 같은 것이 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저는 한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해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번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임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교사가 되는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 정책상 그것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임신한 여성과 아이가 있던 없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대중 매체는 집에만 있는 여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집안 일은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여자의 위엄과 관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그들은 집안 일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던 안 받는 사람이던 누군가에 의해서 여전히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몇 년 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여성들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밖에서 혹은 집안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경제적인 필요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이 여성을 집에만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까? 만약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성이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은 신중히 조정된 일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직장일을 하고 가정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정 밖의 활동을 몹시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힘의 한계라는 현실성에 의해 묶여 있는 딱 죄인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주목을 끌었던 갇혀 있는 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정중하게 저의 자녀들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 나서 제 남편의 직업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집에







Winberg

간혀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집에 간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다시 보세요! 저도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가진 한 개체란 말입니다. 독서를 하고 소신이 있고 때때로 재치까지 있습니다. 저를 바로 알 기회를 가지세요!” 저를 잘 알며 스스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더이상 “집안에 간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저의 가정이 제 빛을 덮고 있는 되말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이고 저는 그 방과 제 빛의 영역 안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밝히기 위하여 벽난로 장식 선반 위에 세워진 촛불입니까? 아마도 집안에 간혀 있는 이라는 단어는 제 안에 있는 한 조각 애처로운 자존심, 즉 방 안의 한낱 촛불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 단어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은 제가 살고 있는 방, 즉 저의 가정, 가족, 이웃, 그리고 와드를 위해 꼭 맞는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주요한 일이고 다른 누구도 제 주변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제가 세운 우선 순위를 인정하시고 제 자신의 작은 빛을 돌보는 방법을 인정하시고 계심을 저는 언제나 확신합니다. 저는 또한 그 빛이 계속 발하도록 하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한 재능과 힘이 요구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저는 모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그러하듯이 제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모두를 비칠 수 있는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은 한 시대에 극소수만 존재합니다. 브리감 영은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서부로 인도하는 유타 주와 다른 주들에 정착시킨 모든 공을 그에게 돌립니다. 그가 영감을 주고 인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을 경작하고 오두막집과 성전을 짓고 빵을 굽고 빨래를 하고 마을을 건설하고 노래를 작곡하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농작물을 거두고 또한 서부를 개척하여 정착시키는 데 들어간 모든 다른 일들을 한 사람은 작은 촛불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은 빛이 없었다면 브리감 영의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결국, 하나님은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명하신 그러한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성공적인 아버지나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장군이나 성공적인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더욱 위대합니다.”(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39년, 285쪽)라고 말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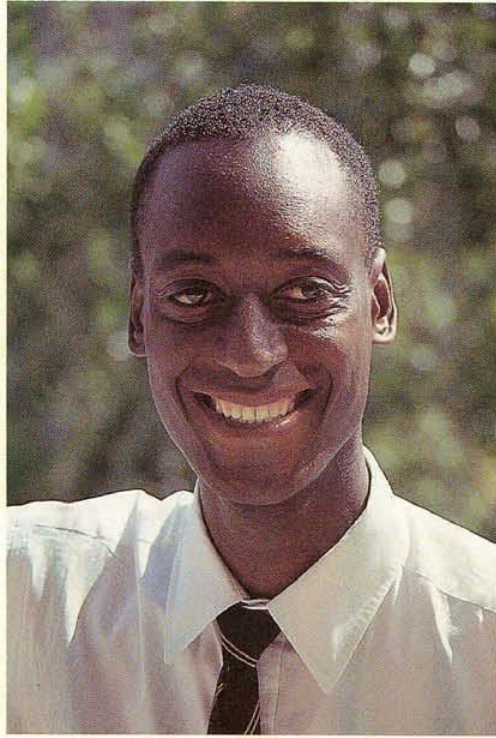
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가끔씩 “간혀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린 네 자녀의 어머니였고 매우 바쁜 남편의 아내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저 간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묻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장난감과 어린 아이들로 난잡한 방 안에서 다림질을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연차 대회를 보고 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말씀하실 때에는 마치 그분이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다리미 위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후에 저는 경전 공부를 하고 성전을 방문하기 위하여 저의 어린 자녀들과 무척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기 보다는 울고 보채는 아기들과 함께 복도에서 보내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에 읽은 경전 지식이 제 여생을 통해 지속되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간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만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생활이 이세상에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여질지라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간혀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집안에 간혀 있는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방을 밝히는 여인으로서 제 촛불의 빛이 발하는 영역 안으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저의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과 제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저의 재능을 가두어 놓고 있을까요? 그 일이 제가 저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까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주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교사가 되고 공장 직공이 되고 간호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간혀 지내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안에 간혀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정에 목표를 주는 여자”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저를 항상 염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올리비오 고미즈  
만델은 가난과 내전과  
기근에서 살아 남아  
직업 농구 선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두 명의 선교사를  
만났다.

